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道는 항상 우리주변 가까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한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법회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또는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삶 아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억겁 광년을 통해서 차원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이 세상에 모두 출현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나찰나 모습을 바꿔가면서 이 세상에 나오죠. 이 부모에게서 낳고 또 이 부모에 가서 낳게 되고, 모습을 바꿔가면서 곤충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바꿔쓰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때로는 곤충이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새가 되고, 또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렇게 거푸거푸 돌아가면서 화해서 나투는 이 까닭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모두가 내 자식들이 울고 있고 내 형제들이 울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동참하여서 더불어 모두 한마음으로서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또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데로 돌아갑시다.

주면 받게 돼 있어

우리 인생이란 지수화풍(地水火風)이 우리를 형성시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살게 하고 나중에는 지수화풍으로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수화풍의 그 가공된 물주머니 속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벗어나면 못살듯이 그렇게 인간도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은 찰나찰나 돌아가니 그것도 공해서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현실에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생명들로 몽땅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들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인과로 인해서 인과성이라든가 영계성 · 세균성 · 업보성,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내 영혼과 더불어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같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형성됐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불가(佛家)에선 오신통(五神通)이라고 부릅니다, 이름해서. 천이(天耳) · 천안(天眼) · 신족(神足) · 숙명(宿命) · 타심(他心),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현재의 말로 한다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왜냐? 모두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바로 불기둥이라고 이름한다면 땅을 딛고 하늘을 꿰고 불기둥이 서 있다면 불기둥이 수레를 싸돌고 있어요. 이 기둥이 가운데 섰고 밖에는 수레가 돌아가는 게 우리 생활이에요, 모두가.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근본 기둥 그 자체에 부합이 돼야만이 우리가 오신통 즉 그 수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벗어날 수 있는가. 보십시오. 아까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그랬죠, 오신통이 현대 용어로 바뀌어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됐던 것이 솔솔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영계성이니 뭐니, 모두가. 그렇다면 그 나오는 구녘에다 다시 입력을 해야만이 그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들어가는 대로 되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알아듣기 쉬울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라면, 컴퓨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구녘에다가 다시 일임해 놓는다면 입력이 다시 돼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다 들이고 낼 때에 진정코 의심을 하지 말고 '나를 형성시키고 이끌어나가는 주인이 바로 나의 마음 가운데 선장이로구나.' 또는 '나의 뿌리로구나, 내 몸이 싹이라면 나의 근본 뿌리는 바로 나의 주인이로구나.'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내가 움죽거리는 일거일동이 바로 그놈으로 인해서 움죽거린다고 생각할 때, 진짜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맡겨놓고 있을 때에 통신이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생명이 의식을 가지고 이 몸속에 있는데 큰 혹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큰 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 국토라고 해도 됩니다. 이 국토에서 모든 자생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신호가 가면 즉 내 마음에서 통신이 가면 대뇌를 통해서 중뇌를 통해서 책정이 되면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생명체의 소임을 맡아가지고 있는 공장장들이 전부 작용을 하게끔 합니다.

이것은 심성의학이기도 하지만 심성과학이기도 합니다. 이름만 거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로써, 말이 문제가 아니고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면서 떼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가서 내 한생각에 이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따라줄 수 있다면, 바로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즉 시쳇말로 한다면 원자 속에서 분자로 하여금 입자가 되어서 털구녘을 통해서 들이고 내면서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으로서 응신(應身)이 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생중생들에게 안과 밖을 조복을 받게 되면 이 부처님 국토에서 낱낱이 보살로 화해서 헤아릴 수 없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세계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 즉 정신세계의 50%를 아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새록새록이 걸려서 돌아갑니다. 유의 50%와 무의 50%가 같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여여하게 돌아가며,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물리가 터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천리를 가도 간 사이가 없고 와도 온 사이가 없이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으련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고 오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네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고 하셨어요. 왜냐? (물컵을 들으시며) 이 물이 있는 거를, 과학적으로는 이 물이 양이 얼마고 그릇이 얼마만하고 물의 성분이 어떻고를 알아내는 거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뜻은 그걸 보고 아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줄 알고도 이거를 갖다 먹지 못한다면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야. 내가 목마를 때 남을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만이 도라고, 그것도 이름해서 도라고 하느니라.

정신계 얘길 하니까 그거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미 부처님 법이 나투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됐다가 형제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부처님도 한생각에 이 모든 자생중생들이 화(化)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법신이 되시고 화신이 되시고 응신이 되시고 또는 아미타도 되시고 아촉도 되시고 관세음도 되시고 지장도 되시고 약사도 되시고 닥쳐오는 대로…, 한번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여보!"하고 왔을 때는 금방 남편이 됐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얘, 아무개야!"하고 부르거든. 그러면 금방 또 아들이 된 거예요. "형님!"하고 들어오니깐 금방 형님이 된 거죠. 그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부처님의 한생각이 돼지가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거기에 응해 주십니다.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되셔서 돌 아니게 하시니깐 돼지가 건져지죠. 돼지의 무명을 벗고 한마음이 돼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 형성되죠. 또 소가 응해달라고 할 때 소 속으로 들어가서 소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천차만별로 원하는 거를 다 응해주실 수 있다는 것은 한생각에 헤아릴 수 없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듯, 헤아릴 수 없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습도 각각이요 또는 이름도 각각이요, 용도도 각각으로 전부 변해서 나투신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소릴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준다는 의식없이 베풀면 받으려 안해도 절로 받게 돼

한걸음 한걸음 실천토록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이 있다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사람이 요즈음 살아나갈 때에 상인은 자동적으로 상인들끼리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듯이 물건도 자연적으로 금은 아무리 닳아도 금방 쌓아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며,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돈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집이 화목하고 웃을 때 '아! 저 집엘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돈도 들어오는 거지, 아니 돈이 미쳤다고 만날 싸움질만 하는 데로 들어가요? (대중 박수)

오늘 여기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네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한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는 거죠.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위해서, 모두가 내 자식이니까요. 나오지 않은 것은 들어갈 줄도 몰르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나올 줄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줌으로써 내가 받게 돼 있고 받음으로써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준다고 하고 내가 줬으니깐 이런 이름이 나겠지, 내가 줬으니깐 덕이 오겠지, 내가 줬으니깐 나중에 뭐가 있겠지, 이런 생각일랑은 아예 마십시오. 부처님 심부름을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심부름을 잘 할까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써 모든 거를 자기 그릇대로, 높이 갈려고 하지도 말고 내려갈려고 하지도 말고 가는 거 끌어잡지도 말고 또 오는 거 막지도 말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생활을 해나가신다면, 보이지 않는 빈 손들이 여러분한테 모두 아마 공덕을 배려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깥으로 그렇게 찾는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신계의 마음과 물질을 둘 아니게 모두가 행할 때에 공덕인 거지, 정신계는 싹 빼놓고 물질계만 생각하고 이름만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덕이 됩니까? 어떻게 한마음의 공덕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4, 5년 전이에요. 삼남매가 사는데 외국에 일하러 갔다가 애들 아버지가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 집엔 할머니 한분 밖엔 안 계시고 벌이 할 사람도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신도한테 "여보시오! 얘들을 학교를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진정코 당신이 하는 거,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울부짖음, 당신의 쓰라림, 이런 거는 다 자기가 더 잘 알지 제삼자가 더 잘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진실로 아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한 나무가 제 뿌리를 믿지 않고 남의 형상을 믿어가면서 남의 이름을 믿어가면서 에너지를 나한테 공급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본들 그 나무로 에너지가 가겠습니까. 바로 제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그 싹으로 올라가서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싹은 또 에너지를 내려보내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곤충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곤충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짐승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러죠. 물에서나 들에서나.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먹는 줄 아십니까? 허허허. 사람은 아주 남에게 보이지 않게 정신을 잡아먹고 살아요. 사람들은 정신을 잡아먹히고 정신을 잡아먹고 이러고 살죠. 그러니 정신계의 내 마음공부를 안 하신다면 앞으로는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오겠지요. 그런데도 공부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났다 하면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 한척과 같습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배 한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만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배 안에 들어 있는 그 자생중생들은 선장을 믿고 마음을 한마음으로써 모든 것을 선장한테 맡겨놓고 침착하게 앉아서 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깥으로 찾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친다면 살려달라고 일어나서 막 아우성을 치죠, 이 이름 저 이름 부르면서. 그런다면 선장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배는 뒤집히고 말죠.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이 짐승들이 서로 육으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어떤 땐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차라리 모습이 없었더라면 좋을 걸 모습을 다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곤 저렇게 고생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픈 데 있으면 의욕이 생기질 않고 돈이 없으면 의욕이 안 생기고, 이거는 일일이 그냥, 이 모습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뜻은 너무 광대하고 묘해서 이 한문으로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슴에 와 닿아야 할 텐데 가슴에 와 닿질 않아서. 나는 그런 것을 현대말로 바꿔서 옛날엔 방편으로 달구지라고 했다면 지금은 짐차라고 하고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알아들을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첨단을 넘어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스님, 지금 병원에서 하혈을 하고 죽게 됐습니다." "응, 알았어."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 문 바깥에 한발 떼어놓는 것과 저 우주법계를 한발 떼어놓는 것과 똑같애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집을 가시거나 회사를 가시거나 한번 갔다와 보세요, 아니 가지나.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간다 온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그냥 한찰나입니다, 빛보다 더 빨리. 그래서 빛보다 더 빨리 이 몸 속에 있는 그 업식들, 악업 선업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가지고선 그렇게 중용을 하는 거죠.

이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 생명들이 같이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갈 게 어딨나요.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걸요. 하나로 돌아갔느니 안 돌아갔느니 이것이 먼저니 이것이 나중이니 할 수도 없죠. 그냥 공동으로써, 마음이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그대로 공동으로써의 그 가운데에서 높지도 않고 얕지도 않게, 물질세계 정신세계 따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중용이에요.

그러니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 아닌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가 이 세상에 나서 모두 봤으니까 배웠고 알았지, 그것들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알고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죠. 내 벗 아닌 게 하나도 없고요. 때로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못났느니 잘났느니 하고 때로는 깔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모두가 생명이 있고 모두가 마음이 있고 삶이 있는 거니까요. 부처님 법이 따로 높게 훌륭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훌륭하게 해나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꼭 실천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有와 無가 함께 돌아가야

지금 나가서 잘못되는 아이들또 있고 천차만별로 잘못 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력은 들어오고 나가는데 둘 아니게 될 수 있으나 전구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한 가족의 식구들이 자식이다 부모다 이런 관계가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선 가설이 된 거예요. 부모다 자식이다 형제다 하는 게 가설이 된 거죠. 가설이 됐으니까 내가 내 주인공에 불을 켠다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저놈의 새끼, 왜 나가서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들어오면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다면 점점 그것은 아예 마구니로 번져서 버려요. 그러나 "얘, 어디 가서 이렇게…, 배고프지 않으냐? 난 너 걱정 많이 했어." 하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싸준다면 분명 마음이 합쳐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맡겨야지, 마음이 잘못된 거는 마음이 고쳐야지 말로

☞ 18면으로 계속

생활이 바로 공부하는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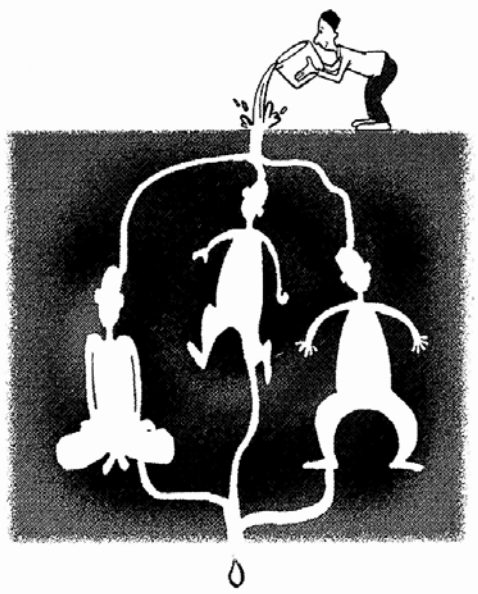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